

## 지역별 테러 동향

## 아 · 테

## ○ 韓, 한-일 10년 만에 대테러협의회 재개...“국제범죄·테러 공조 강화”

- 5.13 언론은 한일 양국이 '16년 이후 약 10년 만에 일본 도쿄에서 대테러협의회를 재개하여, 국제 테러 및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, 대테러 관련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고 보도

## ○ 파키스탄, 사흘만에 또 폭탄테러...9명 사망

- 5.13 언론은 최근 무장단체의 폭탄 테러로 경찰관 15명이 숨진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사흘 만에 또 유사한 테러가 발생해 9명이 숨졌으며 테러는 삼륜차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면서 사망 9명, 부상 23명이 발생했다 보도.

※ 이번 테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아직 없지만, 외신은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파키스탄탈레반(TTP)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언

## ○ ‘학교에 폭발물’ 13차례 협박한 1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

- 5.14 언론은 자신의 모교와 전국학교, 철도역 등 공공시설에 대해 13차례 폭발물 설치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검찰이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1년 6개월, 단기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다고 보도

※ 재학 중인 학교 휴교와 재미를 위한 본 범행으로 경찰과 군, 소방 등 630여 명이 동원되고 폭발물 수색에만 63시간 이상을 할애,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었다 부언

## ○ 韓, 與 “정청래 겨냥 SNS 테러모의’ 제보...경찰에 수사의뢰”

- 5.17 언론은 6·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상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테러 모의 제보가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수사와 신변 보호를 의뢰하였으며, 위 상황을 정치적 폭력이자 선거 방해로 보고 있다고 보도

※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사안의 구체성으로 인해 수사 의뢰를 하였으며, 모의 행위도 중대범죄로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부언

- 日, 도쿄대 우익 참정당 강연에 테러 예고...축제 하루 전면 중단
  - 5.17 언론은 日 도쿄대 축제에서 우익 참정당 대표의 강연을 겨냥한 폭파·살해협박 이메일이 접수되어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으며 대학 측 자체 수색 이후, 하루 만에 축제가 재개되었다 보도
    - ※ 참정당은 '언론과 표현의 자유'를 침해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하는 한편, 같은날 도쿄대에선 참정당 대표의 차별적 언행을 비판하는 시위가 있었다 부언
- 韓, 선거 앞두고 정당 지도부 테러 위협으로 경찰 경호 강화
  - 5.19 언론은 SNS상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암살·테러한다는 정황을 인지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, 여·야 각 당 협의 하에 '전담 경호팀'을 조기 운영하기로 결정 했다 보도
    - ※ 경찰은 상황 발생 시 순찰차 출동,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투입, 상황이 중대 할 경우 가용 인력을 최대한으로 적극 활용 할 예정이라고 부언

## 유 럽

- 러 모스크바, '드론 피격' 사진·영상 게시 통제
  - 5.14 외신은 러시아 대테러 위원회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 등 피해 상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전면 통제하고, 이를 위반 시 개인 최대 5천 루블, 법인 최대 2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한다 보도.
    - ※ 모스크바시의 이번 조치는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러시아의 전승절 열병식과 함께,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 강화에 따른 당국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부언
- 英, 反유대주의 공격 늘자 X도 테러·혐오 콘텐츠 단속 강화
  - 5.18 언론은 최근 영국 내 反유대주의 범죄 확산과 SNS 책임론이 커지자 X(옛 트위터)가 오픈콤과 협의해 혐오·테러 게시물 신속 삭제와 관련 계정 차단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
- 英, 암호화폐 활용 '서비스형 테러' 확산 우려
  - 5.19 언론은 친이란 '카타이브 헤즈볼라'가 미국 내 유대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, SNS·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작원을 모집하고 암호화폐로 대가를 지급하는 '서비스형 테러(Terrorism as a Service)' 양상이 확산 되고 있다고 보도

## 역사 속 테러사건

### 아프가니스탄, 독일 대사관 차량 폭탄 테러

- 2017. 5. 31. 08:25경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내 독일 대사관 인근에서 차량 폭탄테러로 90여명 사망 및 40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고, 피해자 대부분 민간인으로 확인



※ 폭발반경 4km 이내에 위치한 독일·일본·인도 대사관 등에 피해가 발생했으며, 韓 대사관은 관저 일부가 손상되었으나, 사상자나 교민 피해는 없었음

- 아프가니스탄 국가안보국(NDS)은 배후로 테러단체인 「하카니 네트워크」를 지목하였으나, 해당 단체는 부인하였고,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(ISIS)가 배후로 자처
  - 이후 정부의 안보 무능 규탄 및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상원 부의장 「살림에자야르」의 아들을 포함한 20여명의 사상자 발생
- ※ 이어진 장례식에서 3번의 연쇄 폭발로 수십여 명 추가 사상

## 테러 상식

### < 하카니 네트워크(HQN) >

- (목표) '70년대 아프간內 서방세력 축출 및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
  - \* '12년 UN·미국, '14년 영국, '15년 캐나다에서 테러단체로 지정
- (연계세력) 탈레반, 알카에다, 파키스탄 탈레반, 라쉬카르 에 타이바 등
  - \* '21년 탈레반 재집권 후 탈레반 정권內 주요 세력으로 부상
- (핵심인물) 잘랄루딘 하카니(창설 및 최고지도자)
  - 시리주딘 하카니(現아프간 내무부 장관 / 잘랄루딘의 큰아들, 탈레반 부총사령관)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(北와지리스탄 미람샤)을 근거지로 아프간 동부 3개 州 (파티야·파티카·코스트)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카불 공격을 주도
- (주요활동) ① '08.7 카불 인도 대사관 차량 대상 자폭테러로 198명 사상, ② '12.4 카불 고층건물에서 각국 공관 등을 공격하여 52명 사상, ③ '15.8 카불 시내 압둘하크 교차로에서 폭발물 적재차량으로 미군 용역업체 차량에 자폭하여 109명 사상